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맞손'

전북소방본부·소진공 광주호남본부, 협약 체결...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등 주내용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이하 공단)는 3일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의 밀집된 점포와 미로식 통로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화재 위험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자율적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4차산업기반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화재예방 협업시스템 구축 △자율소방대 활동 지원이다.

이 중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시범사업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 내 도로와 개별점포 등의 공간정보를 전자지도로 구축한 후, 이를 소방출동시스템과 연계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현장에 최단 경로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또한, 공단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합동점검 시 소방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화재예방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진 개선이 어려운 점포는 공단에서 직접 소화기 등 소방용품을 지원하여 시장의 화재 예방 환경을 체계적으로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가 3일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자율소방대의 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소방본부는 자율소방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공단은 겨울철 심야 시간 화재 예방 순찰과 철시 전 안전 점검 등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방한 조끼, 방한장갑 등 물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전통시장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시장 상인

들의 안전의식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역 공단에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이후 열린 김관영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4차산업 기반의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시범사업과 자율소방대 활동지원 등 최신기술과 협력체계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도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형 저출생 대책 일환 양육지원 사업 본격 추진

도, 2개 사업 시행...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가족친화 환경 조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달 18일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북자치도가 양육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당 분야는 21개 세부 사업에 총 333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 이후 여성 대부분(88.8%)이 경제활동을 지속 희망함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으로 본격적인 출산장려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출산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모 응원·안심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의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만의 무상보육을 실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플 등 아빠들의 최종우돌 육아를 도울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수납정리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맘의 업무·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취미 개발 토크와 힐링을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양

육, 문화체험, 코칭 등으로 건강한 부부관계 정립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주중 야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교대 근무, 병원 진료, 출장 등의 사유로 양육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 수요를 반영한 아이돌봄을 지원한다.

▲아이 행복·안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문화 체험, 사회성 증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린나래 영유아 놀이터 운영(6개월~3세),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4~9세), 대학을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 등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안심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학대로 판정받은 가구만 지원하던 것을 학대 판단 전까지 일정기간(약 2개월) 소요되는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해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접받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며,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 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새만금청·공사,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대폭 확대

앞으로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만금 투자 의향 기업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형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 향

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울러,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해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면허권 이용료 부과 기준 및 현황

실태 파악,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수차례 검토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최근 11.1조원의 투자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무주군의 번영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무주군의 번영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무주군의회의회  
MUJU-GUN COUNCIL